

#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

600년 역사의 최초의 족보! 안동 권씨 족보인 '성화보'는 한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그 우수성과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성화보'는 권씨 가문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기록을 담고 있어 당시의 족보 편찬 기술과 문화적 전통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족보는 15세기 후반에 편찬되었으며, 권씨 가문의 중요한 선조들과 그들의 업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한국 역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UNESCO 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프로그램으로, 문서, 사진, 비디오, 오디오 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기록을 보존하여, 미래 세대가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이해하며,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록유산은 인간의 역사, 문화, 지식, 경험을 기록한 자료로, 종이, 필름, 디지털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기록유산은 물리적인 유산과 달리 특정 문화나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될 수 있는 기록유산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문서: 고대 문서, 정부 기록, 계약서, 선언문 등, 서적 및 원고: 중요한 문헌, 작가들의 원고, 사진 및 영상: 역사적 사진이나 인물의 사진, 영상 기록, 오디오 및 음성 기록: 라디오 방송, 음악, 연설, 인터뷰 등, 지도 및 설계도: 고대의 지도나 건축 설계도, 디지털 기록물: 현대의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는 기록물이다.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이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기록

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세계기록유산위원회(Memory of the World Committee)가 관리하며, 매년 새로운 기록유산을 등록하여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의 주요 목표는 기록유산의 보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후세에 전한다. 문화유산의 다양성 인정: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기록을 보존한다. 교육적 가치 증진: 세계기록유산을 통해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각국의 기관이나 단체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 보존 상태 등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제출된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한다. 셋째, 심사를 거친 후, 유네스코는 기록물의 등재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와 관심을 받게 된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으로는 여러 중요한 기록유산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 조선 왕조의 역사와 정치, 사회적 사건들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

**팔만대장경:** 불교 경전을 기록한 목판 인쇄본으로, 불교의 중요한 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창제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문서

이 외에도 한국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들 기록유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족보인 안동권씨 성화보는 안동권문의 자긍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이제 안동 권문(權門)에서 안동권문의 기록유산인 안동권씨 성화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착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권오철 기자

## 정유재란 때 나라를 구한 명신(名臣) 충정공 권협 선생④

안동권씨 충정공 종회



충정공 권협 영정

승리로 끝이 났으며 그 다음해 4월 명나라 군대들도 완전히 철병을 하였다.

권협의 공적은 임진왜란 초기에 대사헌(大司憲) 김찬(金瑔)과 함께 어전회의에 달려가 선조 임금과 종신(臣)들에게 서울을 사수(死守)할 것을 주청 건의한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세(事勢)가 여의치 않다는 결론이 나서 임금이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로 향할 때에 행차를 따랐으며 판서윤랑어사가 되어 경서3도의 군량 조달을 총독하여 명나라 대군병력의 군사들과 말들에게 군량과 시초(柴草: 말뼉이)를 원활하게 공급한 것과 이어서 삼남도체찰사부의 종사관이 되어 전란 극복에 오랜 세월 동안 분투전력하며 많은 곳을 휘돌아 다니며 나라를 구하려 전력을 다한 것도 그의 중요한 공적 중의 하나였다.

세 번째로 정유년에 연초부터 왜군이 14~15만의 대병력으로 재침공을 해왔을 때, 고급사의 특명을 받고 명나라에 들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대병력의 구원병을 요청하여 성사시킨 것은 역사상 그의 능력을 기꺼이 보여준 것인 것이다.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업적은 어느 지역이나 부분적 전투의 승리에 절대 비길 수 없는 거국적(學國的)인 전략을 바꾸어 국운(國運)에 승세(勝勢)를 기여(奇與)한 것으로, 패세(敗勢)의 위난(危難)에 처해 있던 나라 전체를 승세의 전환(戰況)으로 크게 전환(轉換)시킨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의 공적은 실로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幸州大捷)이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閑山島大捷) 등에 견줄 만한 큰 공적이 아닐 수 없다. (끝)

따라서 '성화보'는 단순한 가문 기록을 넘어서 한국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자산으로, 그 우수성과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안동권씨족보[병신성화보]는 당대의 석학, 권제(權樞), 권람(權擘), 서거정(徐居正), 박원창(朴元昌), 최호원(崔浩元) 등이 최고의 자료를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원초적 관점에서 저술한 서적으로 세계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편집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기록유산: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중요한 기록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것인데, 세계기록유산

## 권오협 문충공 회장 양촌 권근 선생 학술 발표

권오협 문충공 회장이 12월 15일 충주향교(전교 이전제)에서 삭망분향례를 지내고 유문(儒文) 강좌 시간에 충주향교 유림과 장의(掌議)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촌 권근 선생 학문을 재조명하는 발표를 하였다. 권오협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문충공 종중 주최로 충주에서 개최되었던 문충공 권근 학문 재조명 학술발표회 때 김영수 영남대 교수와 한중구 한국교통대 명예교수, 이상기 중신고을문화원장, 이태형 충주고구려전문과학관 관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집약해서 충주 유림들에게 전달했다.

첫 번째 논문은 김영수 교수의 고려말 안동권씨 가문의 효와 윤리관이다. 효행록 편찬은 국가가 아닌 안동권씨 가문에서 국제공 권보의 나이 85세 때 66세의 아들 권준이 편찬한 책이다.

두 번째 논문은 한중구 교수의 양촌 권근의 생애와 전설에 관한 내용이다. 17세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38세에 첨서밀직사사에 이르렀고, 익산 유배 시에 입학도설을 저술했다. 조선이 건국되자 낙향하여 충주 양촌에 은거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불렀으나 응하지 않자 계룡산 행재소에 내려와 양촌 권근을 불러 지제교에 임명하였다. 상소를 올려 고려조 포은 정몽주는 충신이니 표창하고 증직을 내려 절의를 숭상하기를 간청하였다. 사헌부 시간원에서 반대하였으나 태조는 권근의 말을 따랐다. 학문적으로 응제시, 동국사략, 양촌집 40권, 오경천경록 등을 저술했다. 이외에도 양촌 권근 선생이 58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경기도 광주에 유탁을 모셨다가 세종 26년에 둘째 아들 권재와 손자 권림이 천장 상주가

되어 음성군 능안에 이장한 이야기도 발표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상기 박사가 발표한 양촌 권근 선생과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한 것이다. 강리도는 양촌 선생은 발문에서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으로부터 밖으로 사해에 이르기까지 몇 천만리인지 알 수 없다.... 건문 4년 가을 8월 일, 건문 4년은 1402년이다. 대한 지리학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도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이태형 충주고구려전문과학관 관장이 발표한 논문이다. 1395년 만들어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에 관한 내용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란 하늘의 모습 '천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려 놓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이 천문도를 제작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가장 관직이 높았던 양촌 권근 선생이 태조의 명을 받아 총 책임을 맡아 제작하고 글을



지었다. 서운관에 근무하던 권중하를 비롯한 9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고려말 마지막 천문대장이었던 당시 75세이던 류방택이 계산을 하고 교서감이었던

설경수가 글씨를 썼다. 권오협 회장은 발표를 마치고 충주 유림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일정을 마쳤다. 권행완 편집국장

#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 친애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 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댁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승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종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 andongkwonmun@daum.net

###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궁중회화연구소)
- 규격 : 가로 107cm, 세로 180cm

###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 자문위원 명단(8명) : 권종달(종사연구위원장), 권오훈(전 문헌편찬위원장), 권영하(수석부회장), 권철환(수석부회장), 권준근(파종협의회 회장), 권오신(좌운공파 회장), 권기수(별장공파 회장), 권행완(간사, 대종회 편집국장)

## 안동권씨 대종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